



해외소식

양자강 삼협댐 물막이 공사 완공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댐인 중국의 삼협댐 1차 공사가 공사 개시 5년만인 지난 11월 8일 1기 공기를 마쳤다.

세계 수리역사상 가장 난공사라는 이 물막이 댐공사는 湖北省 宜昌市에서 30km 떨어진 삼협 댐 하단부의 양자강 양안을 총길이 2,438m의 제방 2개로 연결하여 강물이 강안을 깎아 파서 만든 대형 배수로로 흘러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한 수로이다.

약 500m의 간격을 두고 흙과 돌을 이용해 쌓은 두 갈래의 제방은 각각 강 중심으로 40m만 남겨두고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지난 11월 8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이 부분이 완전히 연결되고 그 가운데 63만m²에 이르는 인공 호수에 담수가 시작됐다.

세계 최대의 役事라는 삼협댐 건설은 이 공사로 제1기 공정('93~'97년)를 마감하고 제2기 공정('98 ~'2003년)에 착수하게 된다.

오는 2003년 발전을 개시해 연간 발전량 870 억kW/h을 생산할 삼협수력발전소와 삼협댐은 최대 저수량이 393억m³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자갈 및 모래 퇴적, 수질오염, 생태환경보호, 문화유적 보존, 수몰지역 주민이주, 건설자금 조달 등과 관련한 적지 않은 문제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삼협댐이 전쟁 등으로 인해 무너질 경우 대재앙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양자강 상류 중경시의 공장 및 생활

배수 오염생태가 심각해 이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특히, 자갈 및 모래 퇴적 문제는 삼협댐 건설 반대론의 목소리가 가장 큰 부분으로써 이 공사 완공 후 상류하상에 매년 1억톤 이상의 자갈과 모래가 쌓여 수년간 대홍수를 유발할 것은 물론 폭동을 야기할 수 있을 거라는 반대론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에서는 홍수기기의 저수지를 제한수위까지 낮춤으로 토사의 퇴적을 줄이고 상류에 13개의 모래 및 자갈 퇴적댐을 건설해 토사 유출 방지립을 만드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교통》

중국, 미얀마 폰론댐 건설 2억달러, 저리 차관제공

중국이 미얀마 최대의 댐인 폰론댐 건설에 2억 달러~2억 5천만 달러 이상의 저리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달 미얀마를 방문한 중국의 吳邦國 부총리와 미얀마 정부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정식계약은 중국측 창구인 雲南省기계진출구공사(YMEC)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 댐은 당초 일본의 컨설턴트 회사가 마스터 플랜을 작성, 가고시마와 미쓰비시 상사가 수주에 주력했으나 일본정부의 對 미얀마 원조 동결 정책에 따라 중국측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에 건설하게 될 폰론댐은 미얀마 중부 만

달레이 지역 사탄江 상류지역에 위치할 다목적댐으로 전력부족이 심각한 미얀마의 최우선 중점사업의 하나이다.

《건설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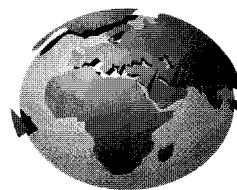


'97년에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을 야기시키며 기세를 떨쳤던 엘니뇨로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의 '98년 여름 날씨가 고온 건조할 것이며, 그에 따라 옥수수와 대두 농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기상예보단체인 CROPCAST는 1950년 이후 발생한 엘니뇨 현상들을 비교 연구한 결과, 대부분의 엘니뇨 현상들은 10~14개월 동안 지속되며 봄에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97년 3월에 발생한 엘니뇨 현상도 '98년 4월 경에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5~10%, 대두 생산량은 7%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국, Agra Europe》



'97/98 국제 곡물 수급전망을 살펴보면, 생산의 경우 옥수수가 전년대비 3.6% 감소 예상되나, 주요 생산국의 재배면적 확대와 작황호조로



밀, 콩 생산이 크게 늘어나서 전체 곡물 생산은 전년대비 1.0% 늘어난 2,017백만톤을 기록할 전망이다.

쌀은 미국, 태국,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의 생산이 늘어나 '96/'97년 대비 0.8% 증가한 381.9백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밀은 미국, 러시아와 주요 수입국 중 중국, 동유럽 등의 생산량은 대폭 늘어났으나, 수출국 중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등의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조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전년 대비 3.4% 증가에 그친 603백만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 옥수수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주요 생산국인 중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로 전년대비 3.6% 감소한 569백만톤으로 생산될 전망이다.

콩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주요생산국의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호조로 전년대비 13.7% 증가한 149.2백만톤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비는 쌀, 밀, 콩과 사료용 옥수수, 잡곡류를 중심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1.7% 증가한 2,006.8백만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역은 쌀, 옥수수, 콩 등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 곡물교역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밀의 교역량 감소로 전년대비 0.5% 늘어난 276.4백만톤으로 전망된다.

기밀재고는 밀, 콩 등의 생산증가로 전년보다 9.9백만톤 증가가 예상되나, 기밀 재고율은 소비 증가로 '96/'97년과 비슷한 15.2%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부 식량정책과》

